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용 배

애국·법치주의 그리고 코미디

기성세대에 편입되면서 개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른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을 함에 있어 남의 입장을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왜 그리 크던지. 그러나 이젠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부터 생각하게 된다. 스스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협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누군가는 외쳐야 할 상황에서도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길 바랄 때도 있으니 숫제 비겁하다 못해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비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바로 아이돌그룹 2PM의 재범과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중적 잣대이다.

그룹 2PM의 리더였던 재범은 4년 전 힘든 연습생 시절 개인 홈페이지에 "나는 한국인이 싫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집단이지메나 마녀사냥을 넘어선 '애국주의의 비극'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다. 청년시절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해 푸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그 아이돌스타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애국주의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아직도 기억한다. 2002년 월드컵 준결승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를. 수천 명의 독일응원단이 독일 국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팀의 깃발을 흔들면서 애국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을. '위대한 독일'을 외칠수록 독일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이번 해프닝은 한국사회의 폐쇄성만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이다. 굳이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 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건 상식의 문제이다.

반면에 국회의원 출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이중소득공제,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론주도층들은 '의외로' 조용하다. 실정법을 위반해도 무덤덤하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용적이 되었는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힘없는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정의사회 구현'을 그렇게 외치던 분이 정의사회 파괴하듯이, 입만 열면 그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그 많은 분들은 '그때그때 달라요'만 외치고 있다.

그들에게 법치는 '법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법으로 다스린다'로 이해될 뿐이다. 물론 지난(至難)한 우리 역사와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혼자만 올곧게 사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은 모르는바 아니다. 강자에 굴종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반드시 남기고 싶습니다"고 '신념'처럼 외치던 전직 대통령은 자살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해 보였다.

애국주의도 좋고, '법의 통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도 좋지만, 최소한의 이성과 논리는 있어야 한다. 젊은 청년이 청소년기 때 한마디 푸념한 걸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애국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실정법을 유린해도 강자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야 하는 사회가 이성적인 사회인가. 전혀 상관없는 아이돌 스타의 해프닝과 국회인사청문회가 필자에게만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코미디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관을 심는 데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지방 소비·소득세, 지방 죽이는 세제 안돼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안의 골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해 독립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도입에 대해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다. 물론 지방세 도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분권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방세 도입은 자칫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렇다 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 지방세 도입은 지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부가 교부세를 나눠주는 지금보다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지방세가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세제'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가 신종플루 철저한 대처를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환자 발생 사실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달 초 확진 환자 2명과 의심환자 3명이 발생한 광주 A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과와 수업을 받는 강의실 및 주변 학생들에게는 이 사실을 고지했으나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전남 B대학 역시 발병 즉시 해당 학과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를 취했으나 대학 전체에는 환자 발생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대학 기숙사도 전체 이용 학생에 대한 체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더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수업은 물론 도서관과 어학실, 휴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집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초·중·고와는 달리 대학은 유동인구가 많아 더욱 철저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염려해 확진 환자 발표와 대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종플루 청정 지역이었던 광주·전남지역도 최근 1주일새 환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불가피한 추석 이후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캠퍼스가 신종플루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학 측의 철저한 대처와 함께 보건당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의료 칼럼

김 재 봉

밤 딸때도 보호장구는 필수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단풍 여행이나 등산을 갔다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눈을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밤을 따기 위해 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장대로 칠 때 밤나무 쪽을 바라보다 갑자기 얼굴로 밤송이가 떨어지면서 가시에 눈을 찔리게 되는 사고다. 가을철이면 안과마다 이 같은 사고로 눈을 다쳐 찾아오는 환자들이 매년 10~20여명에 이를 정도다.

밤송이 가시가 눈에 박혔을 때는 눈을 비비거나 박힌 가시를 그냥 빼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위 사람들이 가시를 빼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눈 속 깊이 밀려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 또 밤송이의 가시는 뽑아내더라도 가시가 박혔던 자리에 흉터가 생겨 침침해 보이는 증상과 함께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밤 가시로 인한 눈 손상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

보통 밤송이가 머리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헬멧이나 챙이 긴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보호 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고글이 없으면 보안경, 선글라스, 일반 안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밤나무 가지를 흔들 경우 얼굴을 될 수 있으면 땅을 향하게 하면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밤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밤송이를 던지고 노는 장난 역시 위험하므로 삼가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밤송이를 따거나 제초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는 성묘객 중 눈에 상처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초기에서 튄 돌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벌초작업 중 풀잎이나 나뭇가지에 눈을 긁히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이물이 들어갈 수 있다. 식물성 이물질에 의한 각막 상처는 언제나 진균(곰팡이균) 각막염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진균각막염은 감염성 각막염 중에 가장 난치성으로 분류될 정도로 치료가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번거롭더라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하거나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되며 깨끗한 물이나 안약으로 세척하는 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밤송이 가시가 눈에 박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시를 혼자서 또는 주위의 도움으로 억지로 빼내려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눈에 통증이 감지되면 무조건 깨끗한 수건이나 붕대를 가볍게 눈에 대고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가시를 스스로 빼냈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눈을 씻어낸 후 바로 안과를 찾아 염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석 명절이면 밤 가시나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만큼 귀찮더라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밝은 광주안과 원장〉

기 고

정 재 학

공무원은 국민을 섬길 때 존경받는다

조선의 정치시스템이 낡아지면서 부정과 부패가 강산(江山)을 덮고 있을 때, 다산 정약용은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셨고, 이에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향해 진정을 다한 글을 쓰셨다. 그 글이 목민심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유효한 교훈을 주는 것은 아직도 나라가 제자리에 서있지 못함일 것이다.

그 목민심서 마지막 장 해관 6조에 선생께서는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고 하셨다. 떠난 후에도 남는 어느 목민관에 대한 백성의 사랑…. 선생은 오직 백성만을 보고 백성을 생각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을 보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에 골몰하고있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성스러운 의무를 지닌 특수한 근로자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복리를 추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전통적 공복(公僕)의 모습에 어긋나는데 심지어 작금의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투쟁에 나선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들의 시국선언은 모두 일부 좌파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후퇴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함이 아니라 민중민주의라고 일컫는 좌파민주의 후퇴, 다시 말하면 친북좌파들의 종북(從北)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공노 및 민공노가 가담하였다는 것은 이 조직 속의 공무원들은 이미 그 관심이 국민으로부터 떠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직무와 본분을 벗어난 사람들이 노동자로 행세하며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엔 관리를 사대부(士大夫)라 칭하였다. 사대부란 '벼슬길에 나아간 선비'를 뜻하며, 이 사대부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며, 바른 예절과 올곧은 충효를 선비정신의 으뜸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수양의 주요 덕목으로 여겼다.

오늘날 공무원들도 아무리 하위직이라도 과거의 목민관들처럼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모든 능력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청렴과 절약은 그 기본일 것이며, 충성과 효도는 만고(萬古)를 지나도 변함없는 덕목이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세 단체를 통합하여 강력한 노조를 형성한 뒤, 좌파노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노총 가입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어떤 정당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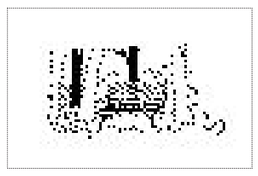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 한다. 편을 이루지 말아야 하며,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 민공노, 법률노조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며 그것도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들이 정치투쟁에 나서서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면 되겠는가.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늘에서 지금의 공무원들을 보신다면, 조선조 관리들의 처벌 방법 중 하나인 팽형(烹刑)을 내릴 것이 틀림없다. 팽형은 부정한 관리를 가마솥에 삶는 형벌이다. 실제로 삶는 것은 아니고, 불 때는 시늉만 하지만 벌을 받는 관리는 제사까지 지내야 한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어떤가. 노조에 가입하여 반정부 정치 투쟁에 나선 공무원들이여. 우리 시대에 팽형을 부활시켜 봄이 어떠한가.

〈전남자유교원노조 위원장〉

無 等 鼓

학동 삼거리



학동 삼거리는 화순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남문로와 무등산 증심사지구 초입부인 의재로가 만나는 곳이다. 609㎡의 삼각지에 불과하지만, 무등산과 화순에서 도심으로 오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여기에 홍등가가 생긴 것은 지난 1960년대 말~70년대 초로 알려져 있다. 송정리의 용보촌, 남구 월산동, 동구 대인동 등지에서 밀려난 '직업여성'들이 가게를 얻어 술과 웃음을 팔았다. 한 때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지만, 요즘은 10곳도 안 되는 가게가 밤에만 문을 연다.

지하철 역도 생겼건만, 길손의 발길은 오히려 끊긴 듯하다. 음주 문화가 바뀐 탓이다.

대신 홍등가 앞 삼각지에 작은 공원이 조성된다. 소나무와 벚나무를 심고 분수를 만들어 주변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는 노후 도심 재생 프로젝트다. 이렇게 하면 홍등가 대신 낭만적인 찻집이나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주변 부동산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도심재생 프로그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원조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 올림픽에 앞서 '바르셀로나 모델'로 불리는 이런 방법을 썼다. 쇠락지구의 낡은 빌딩을 사서 공원을 조성해, 그 일대가 조금씩 살아나게 했던 것이다. 건축가 보이가스(Bohigas)가 제창한 시스템으로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가 런던의 재생에도 이를 참고했다고 한다.

광주시도 금남로 공원, 민주의 종각 공원 등을 만들어 '바르셀로나 효과'를 노렸다. 금남로 공원 옆에 운치 있는 찻집 하나가 들어서긴 했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학동 소공원은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확실하다. 문제는 아예 주변까지 사들여 공원을 넓히자는 일부의 주장이다. 예산이 많다면야 그것도 방법이겠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부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듯 싶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밀, 치매 예방 효과 탁월… 국내 생산률 높여야

얼마 전 밀의 추출물이 치매 중 가장 흔한 병인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에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밀 추출물이 기억력 손상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이미 나빠진 쥐에게서도 호전의 징후가 보였다고 한다.

이게 정말 제대로 연구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밀 재배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약이 식품이고 식품이 약인 시대이다. 이런 걸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종 밀은 안전하고 값싸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아닐까. 우리 밀을 다시 생산하고 우리의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문성희·목포시 측후동

단속 피하기 위한 화물차 개조 대형사고 부른다

요즘 바퀴가 땅에 닿지 않은 채 트럭의 짐받이 밑에 붙어있을 뿐 지면에서 50cm이상 떨어져 들린 채 다니는 트럭을 흔히 본다. 이것은 트럭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해서 바퀴 축을 하나 더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다.

예를 들어 5톤짜리 트럭에 화물을 20톤 실었다고 가정해 보자. 바퀴 축이 두 개인 10톤 화물차에 짐을 20톤 실을 경우,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톤을 넘게 돼 처벌받는다. 하지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무게가 축 두 개에 분산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화물차는 경찰에서 적재 중량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경찰에는 차량 전체의 무게를 다는 장비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적이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사고시 대형 인명 피해도 부른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병양·광주시 동구 소태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